



고창소방서, 미래소방관 직업체험교실 운영

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는 19일 고창소방서에서 심원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소방관 직업체험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미래소방관 직업체험교실은 소방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심원중 재학생들이 고창소방서에 방문하여 진로교육과 다양한 체험을 통해 소방공무원 직업 관심도 증가와 안전의식을 함양해 미래 안전 주역으로 봉사하고 희생정신을 배웠다.

주요 내용은 '소방공무원이 되는 길'이라는 주제로 소방공무원이 하는 일, 봉사하고 송고한 희생정신, 소방관련학과 안내, 심폐소생술, 체력측정, 방화복 및 공기호흡기 구조체험, 방수체험 등을 선보였다.

한편 고창소방서는 고창관내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맞춰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을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창소방서 방호구조과(063-560-1243)에 문의 후 접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표지판 정비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는 '그린푸드 존'에 설치된 표지판을 일제히 정비한다.

그린푸드 존(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 주변 200m 이내 통학로에 있는 문방구, 슈퍼마켓 등에서 건강 저해식품, 부정·불량식품, 유해첨가물 식품 등의 판매를 금하는 제도로, 단순히 안전구역을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정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의 위생적인 환경조성과 꾸준한 관리 감독을 통한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39개 표지판 상태를 일제히 점검해 신규설치 및 보수가 필요한 17군데를 확인하고 새롭게 정비해 부정·불량식품 신고방법 등을 제대로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해 학교주변에 대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구매 환경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남원시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불량 식품 근절을 위해 월1회 전담 관리원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오동초 소방안전교육 실시

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19일 오동초에서 5학년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를 체험위주로 배우고 기도폐쇄 환자에게 실시하는 하임리히법과 화재 시 소화기 사용법을 익혀 긴박한 상황에서 초기 대응 요령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119신고요령, 화재대피요령, 소화기 체험, 완강기 착용 실습 등 다양한 소방안전 교육도 병행 실시해 소방에 궁금했던 점을 해소하고 소방관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동네방네 예쁜 우리마을’ 만들기

적상면, 사랑나눔 1촌 맷기 사업 · 담장 벽화 그리기 등으로 마을주민 결속 강화

무주군 적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한 주민들이 복지촌 맷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간 결속을 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적상면 주민들은 마을담장에 벽화를 그리고 돌봄대상 안부확인하고 불편 사항을 점검 하는 등 아주 특별한 행사를 갖고 있다



복지촌 맷기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마을주민들이 공동 기획하는 등 순수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찾아내어 함께 추진함으로써 소통과 상생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 더욱 의미가 있다.

적상면 구역마을 주민들은 이번 복지촌 맷기 주민공동체 강화사업명을 ‘동네방네 예쁜 우리마을’ 만들기로 정했다.

구역마을은 적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한 마을 포트럭(pot Luck) 마을 대잔치, 동네방네 예쁜 우리마을, 자녀보다 이웃사촌(1촌 맷기) 등 3가지 사업으로 분류, 주민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전한 복지마을 만들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포트럭 마을 대잔치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어울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음식준비가 가능한 마을 주민들이 준비해 온 음식을 함께 나누다.

동네방네 예쁜 우리마을은 마을 돌래 및 안길 담장을 예쁜 그림으로 채색해 마을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벽화 그리기에 앞서 적상중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벽 틈새 매우기 활동에 나섰으며, 마을주민들은 마을환경정비와 집수리 등에 힘을 보탰다.

자녀보다 이웃사촌 사업은 적상면 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0팀과 구역마을 어르신 10가구를 1대1 결연함으로써 가족 같은 마음으로 돌봄방문을 하고 있어 주민결속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군산경찰, ‘골든 폴’ 격려 행사 개최

19일 군산경찰서 4층 진포마루에서 개최된 ‘골든 폴’ 임명식에서 “아무도 걸지 않은 하얀 눈발, 황금빛 모래시막 위에 내딛은 첫발은 뒤따라오는 후배들에게 새로운 길이 됩니다. 지난 30년 동안 안전한 군산 만들기에 헌신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여성청소년계장 마정복 경감 등 30년 이상 장기재직 경찰관 10명을 비롯해 선후배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결에서 묵묵히 헌신한 고마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포상휴가증을 수여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고창경찰, ‘골든 폴’ 장기재직자 격려 간담회

고창경찰서(서장 이상주)는 19일 경찰에 입문한지 만 30년 된 직원 6명을 초청해 장기재직자 격려 간담회를 개최했다.

골든폴(GOLDEN-POL)은 지난 2014년부터 시행돼 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만 30년 경과 장기 재직자 선배 경찰관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고창서 골든폴은 총 10명으로, 권성남 경감, 이정효 경감, 정상관 경감, 전충식 경위, 신영환 경위, 이창식 경위 총 6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기재직자에게 포상휴가증과 기념품을 수여했다.

이상주 경찰서장은 “30년간 헌신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자긍심을 갖고 후배 경찰관들의 귀감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광화면, ‘화합과 나눔의 텃밭 가꾸기’ 콩 수확

김제시 광화면(면장 정우근)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19일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관수) 특색사업인 화합과 나눔의 텃밭가꾸기 일환으로 지난 6월에 심었던 콩을 수확했다.

콩을 수확한 장소는 주민자치센터 인근 약 600㎡ 면적의 유휴지를 활용하여 광화면 주민자치위원 등 30여명이 직접 땅을 갈고 고랑을 만들어 텃밭으로 변모한 곳이어서 첫 수확에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수확한 콩은 추후 두부로 만들어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전춘성(진안군수) 모친상= 별세일: 19일 오전 5시 40분, 빈소: 진안군의료원 장례식장 1호실(2층), 발인: 21일(수), 장지: 진안읍 선영하, 연락처: 010-7455-8656(이계운 수행비서)

이해양 무주군의원, 장수군정 발전 공로패 수상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이 장수군민들의 공학버스 편의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19일 장수군 군민회관에서 열린 '제53회 장수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 의원은 무주~전주 간 버스요금 인하와 무주~서울 간 버스 1일 생활권 실현을 비롯한 다수의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해당 성과는 모두 무주·진안·장수군민들에게 두루 혜택을 가져다주고 이웃 지자체 간 상생발전의 기반이 되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최근 장계-무주-인천국제공항 간 버스노선 신설은 무주군민 교통복지 향상 및 지역 관광산업·태권도원 활성화와 함께 장수군민의 교통편의와 장수를 찾는 타 지역·해외 방문객들의 지역접근성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아, 장수군에서 그 공로를 높이 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생각지도 못한 큰 상과 함께 지방의원으로서의 열정에 다시 한 번 불을 지피주신 정영수 군수님과 장수군민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늘 함께해주시는 무주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며, “항상 연구하고 찾아가는 자세로 지역사회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신설된 장계-무주-인천국제공항 간 버스노선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마령면, ‘찾아가는 열린 군수실’… 소통의 시간 가져

진안군 마령면(면장 양수현)은 19일 ‘찾아가는 열린 군수실’이 열려 면민과 밀접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찾아가는 열린 군수실’은 전춘성 군수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나해수 진안부군수가 대신했으며 면민 20여명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생활 속 고충과 건의사항을 부군수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등 군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열린 군수실은 소통과 공감을 통한 열린행정 구현 및 군민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는 윈스톱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돌래주 제외)에 운영

하고 있다. 열린 군수실에 참여한 주민은 “이렇게 면으로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니 너무 감사하다”며 “행정이 우리 이야기를 직접 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양수현 면장은 “이번 열린 군수실 운영으로 면민들의 다양한 생활 속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었다”며, “오늘 들은 건의사항들을 면정에도 참고하는 등 주민들이 군정에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